

史의 기록은 錯簡임이 분명하다. 後周年號는 光德4年 冊王 이후가 됨은 물론이다. 여기에서도 ①期나 마찬가지로 中國年號의 사용은 高麗가 願해서 비로소 기록된 것이었고 어떤 政治的 壓力도 없었음은 물론이다.

⑤ 期——이때의 峻豐이 避諱年號라는 今西龍의 주장은 이미 秋浦秀雄, 柳洪烈, 李丙燾 諸氏에 의해 부정돼 왔다. 筆者의 方式으로 보아도 峻豐은 光宗 獨자의 年號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 다만 峻豐이 光宗시대의 自主獨立精神과 관련있다는 諸氏의 해석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여진다. 이미 天授·光德때 본 바와 같이 中國에서 새 나라가 들어서고 그 나라의 冊王 사신이 와서 麗王을 冊王할 때까지는 高麗는 어쩔 수 없는 臨機應變으로 독자적인 年號를 만들어 쓰다가 962년에 보낸 遣宋사절이 다음해에 冊王使를 불러 오자 즉각 峻豐을 버리고 宋年號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公式的으로 사용하는 曆의 종류에 따라 그 나라의 年號를 사용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公式賜曆이 없었던 中國王朝交替期에는 冊王·賜曆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高麗 독자적 年號를 썼던 것일 뿐이다.

648년 唐太宗이 新羅사신에게 왜 新羅는 唐에 事大 하면서도 獨自의 年號를 쓰느냐고 묻자, 신라사신은 願曆을 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三國史記는 전하고 있다. 年號 사용은 願曆에 따라 좌우된 것이었지 자주독립정신과는 無關한 것이었다.

② 期——936년 後唐이 後晉과 교체되자 高麗는 다음해에 사신을 보냈다.

그러나 高麗史는 938년부터 後晉年號를 쓰기 시작했고 後晉의 사신이 온 것은 그 다음해라고 傳하고 있다. 이것 역시 錯簡임이 분명하다. 後晉年號 사용은 後晉의 冊王使臣이 온 뒤에야 하므로 두가지 記事는 모두 938년이나 939년으로 몰아 놓아야 할 것이었다. 또 여기에는 1~2년 정도 高麗 獨자의 年號를 썼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기간이 너무 짧아 독자적 年號 없이 견딜 수 있었을 법도 하다.

③ 期——947년 건국한 後漢은 그 다음해에서야 建元한 것으로 되어 있고 高麗史는 이때부터 (948) 後漢年號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948년에 後漢의 使臣이 高麗에 왔다는 기사가 高麗史에 누락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이 경우엔 後晉과 後漢 교체기가 너무 짧아 高麗 독자적 年號의 필요성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963년 宋年號를 채용한 이후 고려는 거란 또는 宋의 年號를 번갈아 쓰거나 또는 併用하여 그때 그때의 外交의 형편에 대응해 왔다. 그리고 曆의 발달은 충분히

이루어져 中國에 의존할 필요가 없이 되어 갔다.

中國, 韓國의 政治的 안정과 高麗의 天文·曆學의 발달은 그후 年號와 曆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어 曆은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것을 쓰면서 年號는 중국의 것을 따르는 方式이 되어 갔다.

西紀	高麗王代	高麗年號	中國年號	中國使臣來麗	冊封麗王	高麗遣使
918	太祖一	天授1				
919	二	2				
920	三	3				
921	四	4				
922	五	5				
923	六	6				
924	...	7				
925	...	8				
926	...	9				
927	...	10				
928	...	11				
929	...	12				
930	...	13				
931	...	14				
932	...	15				
933	...	16	後唐年號	後唐	冊王	後唐
934	...					
935	...					
936	...					
937	...					
938	...					
939	...					
940	...					
941	...					
942	...					
943	...					
944	...					
945	...					
946	...					
947	...					
948	...					
949	...					
950	光宗一	光德1				
951	二	2				
952	三	3				
953	四	4				
954	...					
955	...					
956	...					
957	...					
958	...					
959	...					
960	...					
961	...					
962	...					
963	...					
964	...					
965	...					
966	...					
967	...					
968	...					
969	...					
970	...					
971	...					
972	...					
973	...					
974	...					
975	...					
976	...					
977	...					
978	...					
979	...					
980	...					
981	...					
982	...					
983	...					
984	...					
985	...					
986	...					
987	...					
988	...					
989	...					
990	...					

韓國曆書의 變遷

仁荷大 李 殷 晟

百濟가 일본에게 曆法을 傳하였다는 사실은 文獻備考와 日本書紀에 실려 있다. 그러나 當時 쓰였던 元嘉

曆의 흔적은 武寧王 陵誌石에서 보일 정도이고 曆書 自體는 찾아볼 수 없다. 8~9世紀에 신라에 導入된 宣明曆法은 高麗史에 실려 있을 뿐 당시의 曆書를 발견할 수 없다. 그 이후의 曆書를 名稱에 따라서 分類하겠다.

1. 大統曆時代(1370~1652)

高麗 공민왕 19년에 成准得이 明에 使臣으로 갔을 때 明太祖로부터 大統曆을 받아오다. 현제 安東의 柳西厓(成龍)서재에, 1594~1606에 걸쳐 8개년의 大統曆이 보관되어 있다. 曆의 體裁로 보아 大明年號가 붙은 것과 붙지 않은 것의 二種이 있음을 알았다. 1433년(세종 15년)부터 10年 간에 걸쳐 七政算內篇(授時曆, 大統曆)과 七政算外篇(回回曆)의 편찬이 있었으나 실제의 活用은 大統曆의 이름으로 쓰여졌다. 九星을 매우 重要視한 것에 대하여 異常한 感을 가지게 되었다. 暹東洋式曆法이다.

2. 時憲書時代(1653~1895)

李朝 孝宗 4년(癸巳 1653년)부터 한반도에 時憲書라는 이름으로 時憲曆法이 쓰였다. 1년의 길이, 1월의 길이가 실제의 길이에 많이 접근되었다. 大清光緒 몇년, 大清同治 몇년이라는 時憲曆名으로 나와 있다. 丙子胡亂 이후 明을 떠나서 淸에 머린 숙인 흔적이다. 西洋式의 計算方法을 썼다.

3. 時憲曆時代(1896~1897)

時憲書에 陽曆月과 七曜를 下欄外에 넣었다. 이 時代의 年數는 1896, 1897 兩年뿐, 曆書名은 大朝鮮開國五百五年時憲曆, 大朝鮮建陽二年時憲曆이라고 主權을 발휘했다. 開國 505年은 建陽元年이다. 1895年 음 11월 17일을 1896년 양 1월 1일로 하기로 詔勅이 있었다.

4. 明時曆時代(1898~1909)

建陽 2年(1897 고종 34년) 8월에 年號를 光武로 고치고 曆名도 明時曆으로 고쳤지만 體制는 변동이 없었다. 1900年(平)이 閏年으로 된 잘못된 曆書가 나왔다. 學部觀象所版이었다.

5. 曆時代(1909~1910)

大韓隆熙 3년曆, 4년曆이 있다. 太陽曆日 및 7曜日이 正式으로 上欄에 실었다. 1910년(明治43년) 8월 22일에 韓日合邦條約 체결결과다.

6. 朝鮮民曆時代(1911~1936)

조선총독부 관측소編製로 되어 있고 음력일을 日本本土와 일치시켰다. 1915년부터는 月出入時刻을 기재하였고 1933년부터는 月白을 실었다.

7. 略曆時代(1937~1945)

總督府氣象臺의 편찬 陽曆日, 七曜干支, 日出時刻, 日南中, 日入時刻, 月齡, 陰曆日, 月出, 月入, 滿朝시각, 干朝시각으로 曆面 전체를 메꾸다.吉凶에 관한 曆註는 전연 없다. 1940년부터는 음력일을 없애다. 1941년에는 月註를 韓語, 日語 併用하다가 다음해인 1942년부터는 日語만으로 表示했다. 책력은 4.6版으로 줄어 들었다. 다음해부터 8·15해방까지 3개년은 菊版으로 줄었다.

8. 觀象臺曆書時代(1949~1975)

1946~1947년에는 官曆이 없었던 듯하다. 1949년 대한민국정부略曆이 1950년의 歲次庚寅曆書가 발간된 후 曆書라는 이름으로 계속 유지하다. 橫書로 엮었고, 曆註의 欄이 없다. 世界曆을 선견한 일이 있었고, 行星의 位置圖가 실렸다.

9. 天文臺曆書時代(1976~)

1974년 9월에 國立天文臺 發足. 氣象關係는 一切 罷다. 너무 天體現象에 치우치다. 氣象關係를 넣어야 한다고 권고하겠다.

요컨대 曆은 日月의 운행에 따르는 엄연한 客觀的 現象에 따라서 편찬되는 것이므로 情勢에 따라서 左右될 바는 아니지만 國力의 盛衰, 外勢의 強弱에 따라 또 生活의 科學化나 施政方針에 따라서 曆書의 名稱이 달라지기도 하고, 曆註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 달라지는 度는 다른 文化面보다 훨씬 더 예민한 느낌이 난다. 九星, 十二直의 內容에 대하여는 圖表에 의하여 說明한다.

七政算內篇의 基本數値에 관하여

서울대 兪景老·玄正峻

仁荷大 李殷晟

七政算內篇은 朝鮮 世宗朝 元의 授時曆 明의 大統曆을 消化導入하는 作業의 結果로 이루어진 것이다. 全篇 3권이 1)曆日 2)太陽 3)太陰 4)中星 5)交食 6)五星 7)四餘星의 總 7章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그들 앞에 따로 基本數値로서 天行諸率, 日行諸率, 月行諸率, 日月食의 4群의 數値가 提示되어 있다.

이제 그 基本數値의 意味를 밝히고 現代天文學에서의 數値와를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周天度는 角 2π radian을 360° 로 하지 않고 太陽의 平均日行을 1度로 하여 $365^\circ 25' 75''$ 로 하고 있다.